

일본기업의 인프라시스템 수출경쟁력강화 대책

- 경제산업성은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철도, 하수도, 발전소 등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‘인프라시스템수출종합계획’을 6월 27일 발표
- 이번 대책에는 JBIC(국제협력은행)의 용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각료급의 대아시아 영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 되어 개별 수주가 아닌 종합적인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

□ 「일본기업의 인프라·시스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」 개요

- 일본정부는 27일, 인프라해외전개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『패키지형 인프라해외전개 촉진프로그램』을 발표
 - 개별 안전에 대한 수주 경쟁이 아니고, 개발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상대국과 협력해서 수립하고, 엔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
 - 또한,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JBIC(국제협력은행)이 일본 업체의 해외 자회사 수출 안전에 대해서도 용자할 수 있도록 개선
 - 무역보험법도 해외자회사에 의한 거래, 채권 발행 등 새로운 자금 조달기법이나 외국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제공,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기술을 제공하는 거래 등을 무역보험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

- 동 프로그램은 경산성 산업구조심의회 인프라·시스템 수출부회에서 정리한 경쟁력강화대책과 국토교통성의 인프라해외전개 추진 실현전략에 외무, 재무, 총무성 등의 관련 시책을 최초로 종합하여 발표한 대책임
- 日정부는 일본업체의 인프라수출 경쟁력에 대해 “종합적 수주능력이나 코스트경쟁력 면에서 중국, 한국 등 신흥국이나 유럽·미국에 밀리고 있다”고 전제
- 또한 ALL JAPAN 방식인 일본만의 연합체제로는 코스트가 늘어나 수주경쟁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외국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하였음
- 기타, 현지에서 관민일체가 되어 정보수집 등을 강화하고, 물류시스템이나 항공관제시스템 등의 소프트 면에서도 인프라수출을 강화할 예정
- 상대국 니즈를 고려하여, 일본 업체의 좋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상대국에 어필

□ 경제산업성의 ‘일본기업 인프라수출 강화대책’ 내용

① 국제연계 촉진에 의한 코스트 경쟁력 강화

- 가격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① 해외생산거점의 활용 ② 현지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과의 연계를 촉진 방안을 수립

1	<p><u>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공급을 지원받기 위한 공적자금의 정비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코스트 삭감을 촉진하기 위해, 해외현지법인에서 공급하는 물품 등을 공적자금으로 지원 ○ NEXI에 의한 해외현지법인 거래에 대해 무역보험을 적용 ○ JBIC 수출금융 조달조건에 해외현지법인을 고려 ○ JBIC 투자금융의 활용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2	국제컨소시엄 형성지원 - 국제컨소시엄 형성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나 공적자금지원 활용지원 ○ 국제컨소시엄형성지원 FS(사업가능성조사) 창립 ○ JBIC 투자금융, NEXI 무역보험 활용
3	해외에서 개발제조거점 활용을 위한 인재육성지원 - 개발설계과정에서의 저 코스트화, 현지에서의 적절한 Maintenance체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재육성지원 ○ 일본기업 OB조직화와 유효 활용 ○ 해외제조개발거점의 인재육성
4	기업의 코스트경쟁력 강화 ○ 국제연계 추진 ○ 해외기업 M&A ○ 국내기업 간의 연계촉진

② 수주경쟁력의 강화

- 가격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기술개발지원과 현지전문가 활용 등 수주를 위한 현지에서의 공적지원을 강화

1	저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개발 -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술기반의 유지·강화를 지원
2	안전 실현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(FS) - Finance 등의 지원방법과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FS 실시 및 Follow up 강화 ○ FS 실시를 위해 공적지원기관에 의한 관여를 강화하고 유망프로젝트를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원
3	정보수집기능의 강화, 현지사정에 정통한 민간전문가 활용 - 해외에서 개별안전 영업과 정보수집활동을 강화 ○ JETRO와 상대국정부와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○ 인프라 Coordinator 확충·활용(JETRO)
4	인프라 비즈니스 젊은 인재육성 - 상대국 니즈를 파악하고 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인재육성 ○ 상대국 정부·인프라관련기관 등에서 일본의 젊은 인재 internship 추진

③ 포괄적 안전 수주 개발지원

- 개별 안전별로의 수주경쟁이 아니라 포괄적인 안전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구상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정비

1	광범위한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정부 간 협력구축 - 유망국가 프로젝트에 기획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 ○ 유망국가의 정부 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○ JICA를 통해 마스터플랜 작성 협력
2	장기 자금의 공급 - 초기 투자의 회수에 시간이 걸리는 도시개발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자금지원을 실시 ○ JBIC에 의한 장기자금의 공급 ○ JICA의 해외투자유자의 활용

④ 일본의 인프라·시스템 우위성에 대해 홍보

- 정보제공, 인재교류를 통해 일본의 우위성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

1	연수생 수용·요인 초청, 전문가 파견 - 연수생 수용, 요인 초청, 전문가 파견을 통해 일본기술의 우위성과 신뢰성 높은 운전·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이해 촉진 ○ 신흥국의 정부계 기업 등 실무자 연수 및 전문가 파견 ○ 안전에 관여하고 있는 요인 초청
2	실증 지원 - 일본의 인프라채택이 용이하도록 제도정비로 연결하는 실증프로젝트 실시 ○ NEDO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화 지원 강화 ○ 국제기관(UNIDO)을 활용한 기술실증지원
3	일본의 강점을 부각 - 납기지연의 우무, 예정 성능의 실현, Learning cost 등을 명확히하여 신흥국에 input ○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조사보급 사업의 실시 ○ 신흥국에서의 적절한 입찰평가 환경의 정비
4	일본유학, 일본연수 경험자와의 연계 - 일본 유학생, 장기 연수자와 연계하여 일본의 인프라수출을 지원 ○ 일본유학생, OB연수생을 적극 활용한 해외연수 및 세미나 실시 ○ 일본으로의 유학 및 연수의 지속적인 지원

⑤ 파이낸스 지원 강화

- 수주확대를 위해 다양한 파이낸스 기법을 제공하여 지원 강화

1	<u>현지통화로 공적 파이낸싱 확충</u> - 인프라사업 투자 증가로 니즈가 늘고 있는 현지통화의 파이낸싱을 확충 ○ JBIC에 의한 현지통화 파이낸싱 지원, JICA 현지통화 해외투자용자 실시 ○ NEXI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자금공급 무역보험 활용
2	<u>공적금융지원의 신속화, 중소기업 지원의 강화</u> - 산업계에 요구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현 ○ JBIC 용자에서 소규모 안전이나 중소기업 안전은 신속하게 처리 ○ NEXI의 중소기업 보험의 확충 ○ 일본정책금융금고, 상공중금 등의 중소기업 해외활동 자금조달지원 ○ JBIC의 직접용자에 의한 효과적 지원 ○ JBIC, NEXI 등의 체제정비
3	<u>JBIC의 해외투자용자 조기 재개</u> - pilot 안전을 조기에 평가하는 등 지원제도를 재검토
4	<u>JBIC의 용자 적극화, M&A지원</u> - 산업계의 요청이 있는 공적자금을 양적으로 확충하여, 해외자산 매수를 강화 ○ JBIC의 인프라투자촉진 퍼실리티를 활용한 인프라안전 투자 지원
5	<u>일본경제의 공헌할 수 있는 파이낸스 실시</u> - JBIC, NEXI의 금융지원제도 우위성을 활용 ○ 용자를 실시할 때 일본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투자

□ 시사점

-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인프라 수주 및 자원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국가 간의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
 - 금번 경산성에서 발표한 ‘인프라 수출경쟁력 대책’은 일본이 관계기관들과의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추진해 왔던 ALL JAPAN전략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주전략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임

* ALL JAPAN전략은 일본기업끼리 연합하기 때문에 코스트 상승을 초래하여 가격경쟁에서 밀린다고 판단

- 일본 정부를 비롯한 인프라관련 일본기업들은 아직도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경쟁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한일이 연계하여 제3국에서의 인프라수주 및 자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간 협력이 요구됨
- 제3국에서의 한·일 연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① 양국정부의 해외프로젝트 협력기구 발족 ② 일본의 파이낸스 활용메커니즘 구축 ③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대화채널 구축 등에 대해 양국 정부간 협력이 필요함
- 특히, 한일 양국 정부관계자가 공동으로 ① 미얀마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국가와 고위급 대화 실시 ② 한일 양국 공동프로젝트 발굴단 파견 등 한·일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6.27.). 「インフラ輸出支援強化, 政府計画」

경제산업성(2012.6.22). 「일본기업의 인프라시스템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」